겨울철 가스료 더 오르나

내년부터 계절·용도별 차등 요금 추진

내년부터 계절과 용도에 따라 가스요금이 달라지는 요금 차등화가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계절별로 수요격차가 극심한 도시가스 요금도 영향을 받게 돼 겨울철 난방요금이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

2일 정부 당국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 요금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 차등화란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된 전기요금처럼, 산업용이나 도시가스용, 발전용 등 용도나 계절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겨울과 여름 등 계절별로 국제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발전용이나 산업용 가스가 계절별로 수요량 격차가 크지 않은 데 비해 난방용 목적이 많은 도시가스는 겨울철과 여름철의 수요비율이 7대 3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도별, 계절별로 요금이 차등화되면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측은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교차보조(한 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비싼 요금을 물어 다른 부문을 지원하는 형태)를 줄인다는 차원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요금 차등제 도입이 추진되는 것과 함께 내년부터 LNG 도입비나 생산비가 비싸질 경우 과거보다 요금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이 가스 도매가격 산정시 반영되고 있는 해외사업수익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가격에 생산비 외에 해외사업 수익이 반영됨으로써 LNG 가격이 오른 것을 일부 줄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공사 측은 해외사업 수익을 도매가격에 반영하는 대신, 해외 자원개발용으로 돌린다는 구상이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이 남아있다"고 전제하고 "해외사업 수익을 자원개발용으로 돌리더라도 실제 가격 인상 폭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려만큼 크지 않은 반면, 자원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공급원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2개월마다 원가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는 구조지만 정부의 강력한 서민경제 안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 제도의 적용이 중단됐으며 내년 초부터 다시 연동제로 복귀하게 된다. /연합뉴스

2010 연하장 나왔어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2010년 우편연하장을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www.epost.go.kr)을 통해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하장은 복된 새해를 기원하는 복주머니(위)와 경인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 수채화 호랑이 등으로 디자인됐다. 고급형 3종은 1천원씩, 일반형 7종과 청소년용 2종은 650원씩, 연하엽서는 320원이다.

CIT 그룹 파산 신청 등 미국발 쇼크

코스피 21.60포인트 급락

뉴욕증시의 급락과 CIT그룹의 파산보호 신청 등 미국발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지수가 1,500선대로 주저앉는 등 국내증시가 급락했다.

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60포인트(1.37%) 내린 1,559.09를 기록, 닷새째 하락했다. 이는 1,545.96으로 마감했던 8월19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코스피지수는 37.45포인트(2.37%) 내린 1,543.24로 출발해 1,570.15까지 오르며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로 1,560선을 내준 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개인의 매도로 7.21포인트(1.48%) 내린 479.25로 마감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지난주 말 뉴욕증시가 9월 소비지출 감소로 2%대의 급락세로 마감한 여파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또 미국의 중소기업 대출 전문 은행인 CIT그룹이 1일(현지시간)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 ▲CIT그룹=101년 전통의 중소기업 대출 전문은행. 71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가진 미국의 20위권 은행으로, 이번 파산규모는 리먼 브러더스와 워싱턴 뮤추얼, 월드컴, 그리고 GM에 이어 미국 역사상 5번째 규모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은 각각 945억원과 553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하락을 주도했다.

업종별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철강과 은행, 금융업종의 약세가 눈에 띄었다. 반면 통신과 음식료 등 방어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

전남대병원도 투자 가능

지자체 사업 활성화 기대

앞으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건설하는 산업단지, 주택단지 등의 개발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영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도 그린벨트 개발의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6개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농수산물유통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6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전남대 등 국립대병원 등 193개 기타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자금여력이 있는 공공기관과 연기금, 국책은행 등의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각종 문화·여가단지 등의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증권사 거래수수료 인하 잇따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거래수수료를 인하하는 증권사가 잇따르고 있다. KB투자증권은 연말까지 주식, 선물, 옵션 등 모든 온라인 매매에서 유관기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투자증권의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는 0.015%에서 0.00753%로 0.00747%포인트 인하된다. 신규 고객에는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삼성증권은 3일부터 최저 수수료를 오프라인의 경우 기존 0.4982%에서 0.4916%로, 온라인은 0.0782%에서 0.0716%로 내린다고 밝혔다.

대우증권도 이날부터 고객들의 일반 거래 수수료를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시장 참가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 등의 한시적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와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친환경 기업 적금 출시

光銀, 중기 대출상품도

광주은행이 기업전용 적금과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2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그린-비즈 적금'〈사진〉은 기업전용 상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업이나 친환경 상품 제조 기업에 0.2% 포인트 등 최대 1.1%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준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금액은 월 1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또 조달청의 조달물품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은 중소기업들에 대해 물품생산 자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론'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대출대상은 조달청으로부터 낙찰받은 일정 신용등급 이상 중소기업으로 대출한도는 발주액의 80% 이내며 대출기간은 발주일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납품기한+60일 이내)다. 금리는 일반대출보다 0.3~0.7%포인트까지 우대하기로 하고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